

# 대륙신유가의 유교헌정주의 담론:

그 배경과 맥락, 그리고 비판들\*

정종모\*\*

**주제분류** 중국유학, 정치철학

**주요어** 대륙신유가, 정치유학, 유교헌정주의, 자유주의, 완전주의

**요약문**

본 논문에서는 근래 중국에서 대두하고 있는 대륙신유가 진영의 ‘유교헌정주의’ 담론의 동향과 그에 대한 비판을 분석한다. 이른바 대륙신유가 진영은 20세기 중후반 유학의 현대적 해석을 도모한 홍콩대만신유가의 이론적 작업에 대한 비판과 극복을 지향한다. 또한 그들은 정치유학과 제도유학을 기치로 유학의 이념을 적극적으로 제도와 법률에 투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대륙신유가 진영의 대두 배경 및 유교헌정주의 담론의 내용과 성격에 관해 분석한다. 한편, 대륙신유가 노선 가운데 장칭(蔣慶)의 ‘유교헌정주의’ 주장은 유교적 정교합일 형태를 띠면서 급진적 ‘유교헌정주의’ 경향을 대표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 천주웨이(陳祖爲)나 야오중추(姚中秋)는 각각 ‘온건한 유교 완전주의’와 ‘유가헌정주의’를 내세우면서 장칭의 이론에 대한 수정과 비판을 전개한다. 이들의 입장을 소개하고, 그 의미와 한계를 짚어보는 것이 본 논문의 목표이다.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3A2065772)

\*\* 서강대학교 글로벌한국정치사상연구소 전임연구원

## 1. 들어가며

본 논문에서 필자는 최근 중국에서 부상하고 있는 이른바 ‘유교헌정주의(Confucian Constitutionalism, 儒教憲政主義)’ 담론의 현황과 논쟁을 다루고자 한다. 주지하듯이 근래 중국에서는 대국굴기(大國屈起)와 중국몽(中國夢)의 지향 속에서 중화 전통과 문화의 계승 움직임, 특히 유학(儒學)의 재평가 노력이 활발하다. 초중고 교육에서의 고전 교육 강화, 민간에서의 경전독송운동 및 서원(書院)운동의 확산, 공민유학(公民儒學), 생활유학(生活儒學) 담론의 대두, 국학원(國學院) 및 유학원(儒學院)의 연이은 창립 등 학술, 문화 차원에서의 유학부흥 조짐이 뚜렷하다. 동시에 유학의 이념과 사상을 정치나 제도에 반영하려는 정치유학, 제도유학 담론도 활발해지고 있는데, 그 속에서 이른바 ‘유교헌정주의’ 담론도 나날이 힘을 얻고 있다. 한 세기 전 멸문지화(滅門之禍)에 직면했던 공문(孔門)이 부활하여 전통적 사회주의 이념의 공백을 대체하고 있다는 진단도 이제는 생소하지 않다.

주지하듯이 ‘헌정주의(constitutionalism)’란 헌법의 운용을 통해 통치권력의 사용과 공동체의 운영을 규제하는 정치원리를 뜻한다. 특히 18, 19세기 서구에서 자유와 평등을 비롯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 권력의 분립, 법치주의 등이 강화되면서 근현대 헌정주의가 확립되었다.<sup>1)</sup> 또한 이

---

1) ‘입헌주의(constitutionalism)’ 항목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정치권력을 헌법의 범위 안에 묶으로써 그 자의적 행사를 막고 국가에 대해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자유, 권리를 옹호하는 주의. 국가의 기본구조를 의미하는 constitution에서 유래하며 19세기 유럽에서 등장한 용어이다. (……) 오늘날에는 국민주권에 기초한 의회정치 외에 기본적 인권의 보장, 권력분립, 법의 지배(법치주의) 등이 입헌주의의 내용을 구성한다. 1789년의 프랑스 인권선언 제16조에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지 않고 권력의 분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사회는 헌법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 그 단적인 표현이다.” 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편, 『21세기정

러한 변화는 19세기 서세동점(西勢東漸)의 조류와 변법유신(變法維新)의 노력 속에서 중국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예컨대 보수파(개량파)라 할 수 있는 Kang Youwei(康有爲)는 허군공화제(虛君共和制)를 기치로 입헌군주제를 제창했다. 또한 혁명파에 속했던 Zhang Taizhen(章太炎)이나 Sun Wen(孫文)은 민주공화제를 지지했다. 흥미로운 점은 비록 두 진영이 치열하게 대립했지만, 모두 유학의 이념을 얼마간 헌정(憲政)에 반영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따라서 우리는 이들을 근대 중국 유교헌정주의의 출발로 삼을 수 있다. 다만 5.4운동 이래 ‘타도공자점(打倒孔子店)’이 상징하듯 반봉건, 반전통의 횡류 및 자유주의와 공산주의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유교헌정주의는 구체적 결실로 이어지지 못했다.<sup>2)</sup>

그러나 백 년 뒤 상황은 급변했다. 유교헌정주의자들의 목소리가 날로 중국 사상계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장칭(蔣慶)의 부상과 그의 관점을 옹호, 수정하는 다니엘 벨(Daniel A. Bell)의 활약이 두드러진다.<sup>3)</sup> 아래에서는 먼저 유교헌정주의 부흥의 맥락과 배경을 살핀다. 다음으로는 장칭이 제시하는 유교헌정주의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 그에 대한 비

치학대사전(하)』(아카데미아리서치, 2002), 1963-1964쪽.

- 2) 다만 현재 臺灣 헌법의 전신인 中華民國憲法에는 유교의 이념과 사상이 일부 반영되었다. 예컨대 정치가, 법학자이면서 유가 지식인이었던 張君勱(1887-1969)은 1946년 중화민국헌법 제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孫文의 五權分立論과 서구의 민주헌정을 수용하고, 유학의 이념이 헌법에 구현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다음의 논의를 참조. 陳弘毅, 『儒家與憲政: 從張君勱先生的生平與志業談起』, 『中國法律評論』, 2014년 1기, 127-137쪽 및 郭濟勇, 『現當代新儒家思想研究』(人民出版社, 2017), 152-157쪽.
- 3) 예컨대 다니엘 벨이 편집한 *A Confucian Constitutional Order: How China's Ancient Past Can Shape Its Political Future*(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3)는 2010년 5월에 홍콩에서 열린 <유교헌정과 중국의 미래>라는 제목의 학술회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당시 회의의 핵심은 蔣慶의 유교헌정론에 대한 토론이었다. 장칭 외에도 다니엘 벨(貝淡寧), 陳祖爲(Joseph Chan), 白彤東 등이 참여하여 열띤 논쟁을 이어갔다. 참고로, 중국어로 정리된 당시의 발제문과 토론문은 다음 두 책에 수록되어 있다. 蔣慶, 『再論政治儒學』(華東師範大學出版社, 2011) 및 範瑞平, 洪秀平 주편, 『儒家憲政與中國未來』(華東師範大學出版社, 2012).

판적 논의를 야오중추와 천주웨이의 논의를 중심으로 정리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평가와 반성으로 논의를 끝맺고자 한다.

## 2. 근래 유교헌정주의의 배경과 맥락

본 절에서는 근래 대두되고 있는 유교헌정주의의 배경을 약술한다. 우선 ‘헌정(憲政)’이란 한자어의 유래 및 유교헌정주의에 대한 학자들의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sup>4)</sup> ‘헌(憲)’이란 글자는 『시경』이나 『서경』에 이미 등장하는데, 주로 법령(法令)이나 모범(模範)을 뜻하며, 성왕(聖王)이 제정한 문물제도 및 거기에서 파생한 권위를 표현할 때 쓰였다.<sup>5)</sup> 법령과 문물을 제정함으로써 통치의 근간을 확보하고 숭고한 권위를 세웠다는 점에서 성왕의 정치가 ‘헌정’이라 지칭되었던 셈이다. 또한 성왕이 예악과 문물의 제작자인 동시에, 백성과 신하에 대해 도덕적 권위를 지녔다는 점에서 ‘유교헌정’은 유가적 통치의 이상을 대표하며, 이런 의미에서 다수의 학자들이 ‘유교헌정’의 기원을 ‘왕도정치(王道政治)’나 ‘인정(仁政)’의 의미와 연계시켜 논의한다. 그렇다면 이론적으로 유교헌정의 기원은 멀게는 요(堯), 순(舜)의 치세로 소급할 수 있겠는데, 혹자는 중국 고대의 협의(協議) 전통과 헌정주의의 이념 사이의 친근성을 논의한다.<sup>6)</sup> 또

4) 본 논문에서는 광의의 개념으로 ‘유교헌정주의’란 단어를 사용하고, 아래에서 소개할 장칭의 논의를 ‘유교헌정론’으로, 야오중추의 논의를 ‘유가헌정론’으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5) 孔穎達의 『尚書正義』에서는 “憲은 法이다. 聖王이 하늘을 본받아 아래에 가르침을 세우고, 신하는 정성스럽게 순종하고 받들며, 백성은 윗사람을 섬기며 다스려진다(憲, 法也. 言聖王法天以立教, 臣敬順而奉之, 民以從上為治)”고 하였다. 또한 朱子는 『詩經集傳』에서 “憲은 法이다. 文德이 아니면 사람들을 통솔할 수 없고, 武德이 아니면 적을 제압할 수 없다. 文德과 武德을 갖추니 萬方에서 그를 법도로 삼는다(文武憲, 法也. 非文無以附衆. 非武無以威敵. 能文能武, 則萬邦以之為法矣)”고 하였다.

한 법령의 제정 면에서는, 홍범구주(洪範九疇)를 반포한 우(禹), 또는 『주례』로 대표되는 예악 질서를 정비한 주공(周公)을 그 기원으로 삼기도 한다. 혹자는 유가와 법가를 통합하면서 독존유술(獨尊儒術), 대일통(大一統)의 유교국가의 건립을 추동한 동중서(董仲舒)를 내세운다.<sup>7)</sup> 이처럼 많은 경우에 성왕의 통치와 유학의 이념을 연계함으로써 유교헌정의 기원을 논하는데, 그 연장선에서 황제와 사대부의 공치천하(共治天下) 이념이 고양되었던 송대(宋代) 문치주의의 경험을 소환하기도 하고,<sup>8)</sup> 유학의 예치 이념에 담긴 헌정주의적 요소를 찾기도 하며,<sup>9)</sup> 조선의 정치질서를 공론정치나 유교헌정주의의 관점에서 접근하기도 한다.<sup>10)</sup> 그러나 그리스

- 
- 6) 陳明은 「유가사상과 헌정주의(儒家思想與憲政主義)」란 글에서, 삼대의 왕도정치를 유가 헌정사상의 원천으로 보았다. 그리고 습속에 근거한 禮制 속에 이성적 선택과 판단 및 구성원들의 동의 과정이 담겼다는 점에서, 예제 전통에 담긴 정신이 인민의 ‘협약(agreement)’의 원리를 증시한 근대 헌법의 정신과 상응할 수 있다고 보았다. 陳明, 『文化儒學: 思辨與論辨』(四川人民出版社, 2009), 137-138쪽. 한편, 강정인 역시 유가에서 말하는 ‘大同’의 이상이 추상적인 수사가 아니라, 통치자와 백성이 함께 참여하는 일종의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 방식을 함축하며, 여기에서 일종의 민주적 합의를 지닌 ‘헌정적 규범’의 작동이 드러난다고 지적한다. 강정인, 『넘나뚨는 정치사상』(후마니타스, 2013), 209-210쪽.
- 7) 董仲舒의 공헌은 蔣慶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다음을 참조. 蔣慶, 『公羊學引論』(東方出版社, 2014).
- 8) 任鋒은 근세 이래의 헌정유학을 세 조류로 구분한다. 첫째, 宋代 사대부 정치의 흥기와 共治天下의 이상 및 文治主義 이념의 대두. 둘째, 明末清初의 이른바 三代儒(황중희, 왕부지, 고염무)의 계몽주의 사상과 민본주의의 고양 움직임. 셋째 청말 龔自珍에서 康有爲에 이르는 변법개혁 사조의 흥기. 다음을 참조. 任鋒, 「憲政儒學的傳統啓示」, 任鋒 등 주편, 『儒家與憲政論集』(中央編譯出版社, 2015), 87-102쪽.
- 9) 예컨대 최연식은 “유교입헌주의의 관점에서 『예기』는 천자를 천하에 군림하는 지존의 존재로 설정했지만, 동시에 도덕규범과 법제를 준수하지 않는 자의적 권력 행사는 견제의 대상이었다. 『예기』가 지향하는 유교입헌주의는 황권을 부인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의적 권력 행사에 대한 견제를 허용하는 절충적 구조였다”고 평가한다. 최연식, 「『예기』에 나타난 예의 법제화와 유교입헌주의」, 『한국정치학회보』, 43집1호(2009), 45쪽.
- 10) 함재혁은 권력의 규율과 제약의 원리가 작동했다는 의미에서 조선을 ‘유교적 입헌주의’ 국가로 규정한다. 그는 이러한 규정이 “잠재적 양립 가능성에만 근거하

민주정과 근대 서구의 정치제도 간에 연속성과 단절이 함께 존재하는 것처럼, 유교헌정주의의 기원을 중국의 고대, 중세 역사에 두는 것 역시 일정한 한계와 비약을 피할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논의 대상을 당대 중국의 유교헌정주의 담론에 한정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근래 중국에서 유교헌정주의가 대두하는 사상적 배경과 맥락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이는 대륙신유가 진영의 흥기와 분리시킬 수 없다. 거자오광(葛兆光)은 2014년부터 2016년 무렵 대륙신유가의 기세가 격렬해졌다고 진단하면서, 대륙 신유가의 지향과 성격을 다음 세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대륙신유가는 이미 홍콩대만신유가(港臺新儒家)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났다. 둘째, 대륙신유학의 중심적 관심은 이미 문화로부터 정치로 바뀌었다. 셋째, 대륙신유학의 영수들은 고요한 학교에서 “앉아서 도를 논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막후에서 무대 앞으로 뛰쳐나와 국가의 정치체도의 설계에 참여했다. 바꾸어 말하면, 중국의 대륙신유학은 ‘혼이 신체에서 떠난 것’에 만족하지 않고, ‘시신에 혼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sup>11)</sup>

---

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특히 우리의 역사 속에서 입헌주의적 문제의식이 유교적인 언어와 개념으로 표현되고 논의되어서 규범으로서 제도화된 경험이 실제로 존재했었다는 사실에도 근거하는 것이다”고 하면서 조선의 정치체도가 갖는 특성에 착안했다. 함재학, 「유교적 입헌주의와 한국의 헌정사」, 『헌법학연구』, 14권3호(2008), 29-61쪽 참조. 한편, 이석희는 조선 사대부의 도통론과 문묘배향 논쟁을 실마리로 유교입헌주의의 성립 논리와 양태를 분석했는데, 공론정치론, 예제론 등에서 나아가 보다 구체적인 논리와 실례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음을 참조. 이석희, 「조선 유교입헌주의의 성립과 붕괴: 도통론과 문묘배향논쟁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 11) 葛兆光 저, 양일모 역, 「기상천외: 최근 대륙신유학의 정치적 요구」, 『동양철학』 제48집(2017년 12월), 218쪽. 葛兆光의 논문은 대륙의 정치유학 노선 또는 강유웨이당(康黨) 진영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서구의 자유와 민주 등 보편가치를 등한시하고 민족주의 담론에 빠져서 패권주의로 흐르는 대륙신유가의 움직임에 화살을 돌리고 있는데, 기본 관점에서 대만의 李明輝와 비슷한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거자오광이 거론한 2014년 이래 대륙신유가의 움직임이 명징하게 보여주는 사건 가운데 하나가 2016년 1월 중국 청두시(成都市)의 두보초당(杜甫草堂)에서 개최된 ‘양안신유가회강(兩岸新儒家會講)’ 토론회이다. 이 회의는 대륙신유가 진영과 홍콩대만신유가 진영의 주요 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벌인 ‘끝장토론’이라 할 수 있는데,<sup>12)</sup> 전자 쪽에서는 주로 유교헌정주의나 공민종교론(公民宗教論)을 제창하는 이른바 ‘강유웨이당(康黨)’ 그룹이 참석했고, 후자 쪽에서는 홍콩대만신유가의 대표적 인물인 모우종산(牟宗三, 1909-1995) 문하의 학자들이 참석했다. 당시의 회의 내용을 통해 대륙신유가 진영의 관점과 유가헌정주의에 대한 애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아래에서 네 가지로 그 내용과 맥락, 배경을 정리한다.

첫째, 대륙신유가의 유교헌정주의 담론은 홍콩대만신유가 진영에 대한 비판으로서 성립한다. 유교헌정주의가 이른바 ‘대륙신유가’ 진영의 주요 담론이라고 할 때, 이러한 호칭(대륙신유가) 자체가 20세기 중후반 홍콩과 대만을 무대로 활약했던 ‘홍콩대만신유가’ 진영을 다분히 의식한 것이다. 주지하듯이 1949년 중국의 공산화 이후 문화보수주의 진영에 속했던 상당수 유민(遺民) 지식인들이 홍콩과 대만으로 이주하여 학술활동을 이어갔다. 그 가운데 유교적 정체성을 고수하며 유학의 현대적 재해석에 몰두한 그룹을 일컬어 ‘홍콩대만신유가’라 칭한다. 비록 계보와 구성원에 대한 이견이 있지만, 쉬푸관(徐復觀, 1904-1982), 탕권이(唐君毅, 1909-1978), 모우종산을 대표적 인물로 꼽을 수 있는데, 유가헌정주의를 제창하는 대륙신유가 학자들 다수는 홍콩대만신유가의 사상을 겨냥하여 학술 담론을 생산하고 있다. 이를 표명하듯 강유웨이당의 리더 격이자

12) 漢代의 石渠閣會議나 白虎觀會議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이 회의에는 대륙신유가 진영에서는 陳明, 唐文明, 曾亦, 干春松, 任劍濤, 李清良, 陳壁生, 陳賡이 참석했고, 홍콩대만신유가 진영에서는 李明輝, 林月惠, 謝大寧, 陳昭英, 鄭宗義가 참석했다. 예상대로 대륙신유가 對 홍콩대만신유가 간의 난상토론이 벌어졌다. 그 내용은 四川省 연합학술지인 『天府新論』 2016年2期에 「專題: 首屆兩岸新儒家會講」이란 제목으로 정리, 수록되었다.

공민유학론의 제창자인 천밍(陳明)은 「모우종산을 초월하여 kangyue이로 돌아가자」는 제목으로 발제를 진행했다. 그는 모우종산의 문제의식은 5.4 운동 맥락을 벗어나지 못했으며, ‘kangyue이당’이 지향하는 국가와 민족 통합 및 정치적 정체성의 확립이라는 과제를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sup>13)</sup> 이런 까닭에 ‘양안신유가회강’에서는 유학 진영 내부의 종파의식이나 문호지견(門戶之見)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피력되었는데, 이를 통해 대륙신유가 노선이 홍콩대만신유가에 대한 견제와 극복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sup>14)</sup>

둘째, 유교헌정주의는 정치유학, 제도유학 운동의 일환으로서 성립한다. 예컨대 장칭을 비롯한 유교헌정주의자들은 홍콩대만신유가가 심성유학(心性儒學)에만 지나치게 경도되었다고 비판하면서 이제는 유학의 시대적 사명이 정치유학과 제도유학의 부흥에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들은 유학의 사상적 자원 중에서도 특히 한대(漢代) 동중서나 청대(清代) kangyue이 등을 통해 부흥한 공양학(公羊學) 전통에 관심을 쏟는다. 이는 홍콩대만신유가 진영이 윤리학 중심의 송명유학을 계승했다고 자임했던 태도

13) 『天府新論』(2016年2期), 18-19쪽.

14) 예컨대 鄭宗義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앞서 李明輝는 陳明 등이 종파의식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당신들은 분명 ‘康黨’ 또는 ‘大陸新儒家’로 자처하고 있다. 이러한 기치는 선명하며, 당신들의 입장을 명시한다는 점에서 장점도 있지만, 폐쇄적 관점을 쉽게 조장한다는 단점도 있다. (……) 우리가 말하는 ‘康黨’은 康有爲를 중시하며 헌정주의, 공민종교 등을 주장하는데, 주로 20여 년 전에 공양학과 정치유학을 설파한 蔣慶으로부터 배태되었다. (……) 정리하면, 대륙신유가의 목소리만 가지고 (중국의 유학을) 대표할 수 없다. 여기에서 종파를 내세워보아야 다른 쪽을 배척하고, 서로 공격하며, 심지어 서로 거들떠보지도 않게 될 뿐이다. 내 얘기는 우리가 한편으로는 자신의 관념과 사유를 정립해야 하지만, 그 목적은 나는 나대로 너희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 있지 않다. 우리가 어떻게 상호 대화를 추진하고, 상호 간의 배움을 통해 유학에 다원적이고 풍부한 목소리를 담아내어 그 발전을 도모하는가 하는 점이 관건이다.” 『天府新論』(2016年2期), 13쪽. 이밖에 다음의 토론회 기록에서도 홍콩대만신유가에 대한 대륙신유가의 비판적 태도를 읽을 수 있다. 曾亦, 郭曉東編, 『何謂普世? 誰的價值?: 當代儒家論普世價值』(華東師範大學出版社, 2013).

와 선명하게 대비된다. 예컨대 장칭은 유교 이념에 근거한 헌정질서 체계와 그 배후의 정치적 정당성 이론 수립에 천착하고 있다. 그리고 그 핵심은 천도(天道), 인도(人道), 지도(地道)를 통합한 삼중합법성(三重合法性) 구상에 있으며, 이를 구체화하여 통유원(通儒院), 서민원(庶民院), 국체원(國體院)에 기초한 의회삼원제(議會三元制)를 창안하였다. 이밖에 비록 구체적 제도의 설계자로 자임하진 않지만, 간춘송(干春松) 역시 강유웨이(姜瑜偉)가 제창하는 허군공화제(虛君共和制) 노선이 오히려 현대 중국이 수용, 발전시켜야 할 정치 모델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른바 ‘제도유학론’을 적극적으로 제창하고 있다.<sup>15)</sup>

셋째, 유교헌정주의 논리에는 서구중심주의에 대한 반감과 그에 대한 탈피의 지향을 내포한다. 홍콩대만신유가의 경우 자유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동아시아가 서구 근대의 민주주의 이념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sup>16)</sup> 그러나 그러한 수용이 유가 전통을 배제함

15) 干春松의 논의는 다음과 같은 그의 저술에 피력되어 있다. 『制度儒學(增訂版)』(中央編譯出版社, 2017), 『康有爲與儒學的新世』(華東師範大學出版社, 2015), 『制度儒家及其解體(增訂版)』(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12).

16) 牟宗三은 중국에 治道(governing authority)만 있었고 政道(political authority)는 부재했으며, 그 때문에 민주주의와 유사한 전통을 세우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許紀霖은 다음과 같이 牟宗三의 논의를 요약한다. “牟宗三 선생이 고대 중국의 정치에는 治道만 있었지 政道는 없었다고 본 것은 놀라운 탁견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政道는 政權에 상응하고, 治道는 治權에 상응하여 설명한 것이다. 政道는 ‘이성의 본질’을 상징하며 政權을 확보하여 治權로서의 헌법 구조를 창출하는 것이다. 반면에 治道는 ‘이성의 운용’만을 상징하며 (정치 종사자의) ‘지혜의 밝음’에만 의지한다. 중국에는 ‘이성의 운용적 표현(治道)’에 대한 논의만 있었을 뿐, ‘이성의 구조적 표현(政道)’에 대한 논의는 부재했다. 치도의 측면에서는 최고의 경지에 올랐는데, 이른바 성군과 현명한 신하를 중시했다. 그러나 政道, 즉 (객관적) 제도의 정립에서는 결국 실패한 방법을 내놓지 못했다. 역사적으로 다만 관리의 다스림(吏治)만 있었지, (제도에 입각한) 정치(政治)는 없었던 셈이다. 법률이라고 해도 五倫의 수단이거나 賞罰의 매개에 불과했을 뿐, 법률이 독립적 의미를 지니지 못했다. 국가, 정치, 법률이 모두 (객관적) 구조의 형태로 표현되지 못한 것이다.” 許紀霖, 『儒家憲政的現實與歷史』, 廣州市社會科學院, 『開放時代』(2012년), 56쪽. 이밖에 모종삼의 정치사상에 대한 간명한 요약과 비

으로써가 아니라, 도덕 주체에 대한 강조나 민본주의 전통에 대한 계승과 재해석을 통해 촉진될 수 있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자들과 대립했으며, 여전히 문화보수주의 입장을 고수했다. 이러한 그들의 입장을 종자설(種子說) 또는 개출설(開出說)이라 일컫는데, 문화적인 요소가 어떻게 민주주의 토착화와 내면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응축되어 있다. 그러나 종자설과 개출설 이론이 실질적 개입법을 적극적으로 추동한 것은 아니었다.<sup>17)</sup> 반면에 중국의 유가헌정주의 진영은 이러한 태도를 강하게 성토했다. 그들은 탁고개제(托古改制)의 이상을 내세우면서 재조국가(再造國家)의 방책으로서 유학이 전면에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할 뿐 아니라, 그것을 통해 서구 민주주의의 한계를 초극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sup>18)</sup> 예컨대 장칭이나 다니엘 벨이 일인일표(一人一票)를 핵심으로 한 다당제 선거민주를 공박하고 이른바 현능정치(賢能政治) 모델을 제안하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sup>19)</sup> ‘양안유학회강’에서 썩이(曾

평으로는 다음을 참조. David Elstein, *Democracy in contemporary Confucian philosophy*, Routledge, 2015, 43-66쪽.

- 17) 김현주는 근현대 중국의 헌정주의를 크게 사회주의헌정과, 자유계몽헌정과, 유가헌정과, 민국헌정과, 국가주의헌정과로 구분하고, 許紀霖의 논의를 빌려 유가헌정파를 재차 ‘약한(柔性) 유가헌정론’과 ‘강한(剛性) 유가헌정론’으로 구별한다. 전자는 ‘유가 사상 속에 헌정적 요소가 있으므로 개조 또는 轉化를 통해서 헌정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며, 여기에는 홍콩대만신유가 진영의 인물들(牟宗三, 唐君毅, 徐復觀, 張君勱)과 현대 중국의 許紀霖, 陳明 등이 속한다. 또한 후자는 ‘유가사상이 곧 헌정사상이며, 유가전통이 곧 헌정전통이다’라고 주장하며, 이 노선에는 蔣慶, 姚中秋, 康曉光이 속한다. 김현주, 「헌정의 중국성이 갖는 이데올로기적 성격: 姚中秋의 유가헌정민주주의를 중심으로」, 『유교사상문화연구』, 71집 (2018), 125-127쪽.
- 18) 陳明은 유교헌정주의의 시대적 의미로 다음 세 가지를 거론한다. 첫째, 미국 중심의 민주주의 제도와 정치에 편향되었던 기존의 오류를 교정할 수 있다. 둘째, 강력한 정부 조직과 체계에 의지하여 사회의 혼란을 막고, 각종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며, 시민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 셋째, 문화정체성을 확립하여 도덕, 문화, 역사의 가치를 재고할 수 있다. 陳明, 『文化儒學: 思辨與論辨』, 142-143쪽.
- 19) 다니엘 벨의 논의는 다음을 참조. 다니엘 벨 저, 김기협 역, 『차이나 모델: 중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왜 유능한가』(서해문집, 2017).

亦)는 홍콩대만신유가의 경우 5.4운동의 정신과 맥락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서구에 대한 추종을 회의할 능력이 없었지만, Kang Youwei는 오히려 5.4 이전 인물로서 그러한 시대적 제약을, 다시 말해 서구중심주의의 제약을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대만이나 서구의 정치상황을 감안하면 서구의 민주주의에 대해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부연한다.<sup>20)</sup>

넷째, 유교헌정주의 구상은 강한 민족주의 경향을 지니고 있으며, 민족과 강역(疆域)의 통합을 중국의 최우선 과제로 상정하고 있다. ‘양안신유가회강’에서 대만의 리밍후이(李明輝)는 누차 대륙신유가의 민족주의나 쇼비니즘 정서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 대륙신유가 진영의 학자들은 국족(國族)의 통합과 강역(疆域)의 보존이야말로 중국의 당면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국가보존(保國)’, ‘종족보존(保種)’, ‘유교보존(保教)’을 제창한 Kang Youwei의 선견지명에 찬사를 보낸다. 예컨대 천밍의 경우 우파가 말하는 개인과 개성의 해방, 좌파가 말하는 계급의 해방은 작금의 시대적 사명에 맞지 않는다고 단언한다. 그는 지금은 주권을 세우고 강역을 확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며, 그 이후에 인권 등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으리라 전망하면서 민주주의 자체는 이차적 과제일 뿐이라고 말한다.<sup>21)</sup> 탕원밍(唐文明) 역시 Kang Youwei의 국교론(國教論)이나 천밍의 공민종교론 논의가 서구적 원자주의, 개인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나아가 세계질서의 재편이나 문명국가로서 중국의 위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준다고 평가한다.<sup>22)</sup> 큰 틀에서 유교헌정론 노선에 속하는 Kang Youwei(康曉光)은 유교헌정론과 자유주의헌정론을 대비시키면서 전자를 통해 인민주권에 대한 편향을 극복하고, 민족주권의 확립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한다.<sup>23)</sup>

20) 『天府新論』(2016年2期), 44-46쪽.

21) 위의 책, 20쪽.

22) 위의 책, 47-48쪽.

이상과 같이 대륙신유가의 유교헌정주의 노선은 20세기 중후반 홍콩대만신유가 진영이 누렸던 사상적 주도권을 되찾고자 분투하고 있다. 그들이 보기에 개인의 내재적 덕성과 도덕적 자각을 강조한 홍콩대만신유가 진영의 심성유학(心性儒學) 전통은 서구의 자유와 평등의 이념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논리로 귀결되었고, 그 결과 서구중심주의의 폐해를 벗어나지 못했다.<sup>24)</sup> 그들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현대 중국이 당면한 정치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제도적 질서와 정치 측면에서 유학의 타고개제 정신을 능동적으로 계승, 발휘하여 근대 서구의 민주주의와는 다른 중국 고유의 질서와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진단

- 23) 蔣慶 等 著, 『中國必須再儒化: 大陸新儒家新主張』(八方文化工作室, 2016), 170-174쪽.
- 24) 중국 내부에서도 기본적으로 홍콩대만신유가의 절충적 입장에 가까운 논의가 대두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자유주의 진영에 속하는 許紀霖의 입장을 들 수 있다. 사실상 그의 다음과 같은 입장은 순수한 자유주의자의 관점이라기보다는 홍콩대만신유가의 그것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중국고대의 사상과 제도에는 풍부한 정치적 지혜가 담겨 있다. 道統과 政統의 이중권위, 사대부와 군주의 共治天下, 민간의 清議 전통, 文官考試와 御史制度 등등, 이러한 정치적 지혜와 제도적 실천은 民意를 지향하면서 天理를 최상의 가치로 삼았다. 또한 유가 사대부는 사회의 중심 역량으로서 황권이 천하를 독점하는 것을 상당 정도로 제한하였고, 중국의 정치가 왕조와 역사의 흐름 속에서 나름 투명성, 이성, 질서를 갖도록 만들었다. 이를 통해 유구한 전통의 중화제국은 넓은 영토와 많은 인구, 다원적 문화를 유지하면서 이천 년 동안 문명과 역사를 유지했다. 이러한 정치적 지혜를 서구와 구별되는 유가헌정이라 칭한다면 안 될 것도 없다. 그러나 결국 다음의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러한 유가헌정은 불완전한 禮治型 헌정에 불과하며, 스스로 극복 불가능한 내재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형이상학적 義理를 갖추었고, 治道 차원의 기술을 구비했지만 여전히 政道 측면의 大法를 결여하고 있다. 때문에 유가헌정은 현실에 안착할 수 없으며, 최종적으로 여전히 三剛을 핵심으로 하는 예치 질서의 규정에 종속되며, 聖君과 賢相의 개인 덕성에 의지하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헌정이 해결해야 할 통치의 합법성, 권력의 유한성, 평화적 권력 교체 등의 과제를 실현할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유가헌정은 현대사회에서 다시는 독립적 재생의 가치를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속에 담긴 정치적 지혜를 자유주의와 신중하게 접목시키고, 현대 민주헌정의 기본구조 속에서 창조적으로 변화시킨다면, 21세기 중국정치에서 다시금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다.” 許紀霖, 「儒家憲政的現實與歷史」, 廣州市社會科學院, 『開放時代』(2012년 1월), 57쪽.

과 주장은 비록 내부적인 분화를 포함하고 있기는 해도 상당수 ‘유가헌정주의’ 담론으로 수렴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장칭의 유교헌정론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그에 대한 몇 가지 비판을 정리하고자 한다.

### 3. 장칭의 유교헌정론 구상과 그에 대한 비판들

#### 1) 장칭의 유교헌정론 구상

앞서 언급했듯, 현대 중국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유교헌정주의를 제창하는 학자는 장칭(蔣慶)이다.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장칭의 이른바 ‘정치유학’ 이론과 그 맥락에 대해서는 선행연구가 일부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요점만을 제시하고자 한다.<sup>25)</sup> 1953년생인 장칭은 서남정법대학(西南政法大學)을 졸업하고(1982), 모교 등에서 재직하다 2001년 퇴직한 학자이다. 그 이후 귀주성(貴州省) 귀양시(貴陽市)에 자신의 연구소인 양명정사(陽明精舍)를 설립하여 연구와 강학에 매진하고 있다. 그는 초기작 『공양학인론(公羊學引論)』(1995)에서 정치유학과 심성유학의 결별을 선포했고, 『정치유학(政治儒學)』(2003), 『재론정치유학(再論政治儒學)』(2011), 『광론정치유학(廣論政治儒學)』(2014) 등을 통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유교헌정을 구상하고, 사상가로서 자신의 입지를 세우고 있다.

장칭 논의의 출발점은 먼저 ‘정치유학’, ‘제도유학’ 개념의 돌출에 있

25) 이른바 대륙신유가 진영 내의 정치유학의 동향 및 장칭의 이론을 다룬 국내의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이연도, 「정치유학의 의미와 문제: 대동, 소강 설을 중심으로」, 『중국학보』, 60집(2009), 송인재, 「21세기 중국 정치유학의 이념과 쟁점」, 『유학연구』, 33집(2015년), 안재호, 「대륙신유가와 중국문화정책: 유교만능주의를 피하기 위하여」, 『중국학보』, 78집(2016), 정종모, 「현대신유학 내부의 충돌과 분열: 蔣慶 유교헌정론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유학연구』, 39집(2017년), 조경란, 「2000년대 중국의 유교부흥 현상 분석: 의미와 문제점」, 『한국학연구』, 49집(2018).

다. 그는 기존 홍콩대만신유가 진영이 송명유학에 경도된 ‘심성유학’의 틀에만 갇혔기 때문에 유가 전통의 정맥(正脈)이라 할 수 있는 정치, 법률, 제도 구축에 실패했다고 진단하고, 현대 유학의 과제가 외왕(外王)유학의 재건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말한다.

앞서 말한 것처럼, 중국의 유학 전통에는 오로지 정치의 측면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은 외왕유학이 존재한다. 이러한 외왕유학은 객관적 예법제도를 건립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는다. 그래서 ‘수평적 관계’의 사고방식을 통해 내성외왕을 평면적이고 대등한 관계로 놓는다. 외왕이 내성에서 확대되어 나오는 것(開出)이 아니라, 그 자체로 독립적인 규정성과 권능을 지닌다고 간주한다. 또한 세계를 심체(心體)의 작용으로 바라보지 않고, 단지 사물의 상호연관구조를 통해 세계를 바라봄으로써 심체 외에 세계가 갖는 독립적 가치를 긍정한다. 말하자면 이렇다. 전통적 외왕유학은 송명유학을 대표로 하는 심성유학과는 다르며, 그것의 본질은 정치유학으로서 외왕을 확립하는 기능을 지닌다. 그것은 신외왕을 건립하기 위해 필요한 신유학의 세 가지 기본조건, 즉 제도건립의 학문이라는 유학의 조건에 부합한다.<sup>26)</sup>

이러한 그의 외왕유학에 대한 집중과 강조는 자연스럽게 ‘유교헌정’ 논의로 이어진다. 그는 ‘헌정’ 개념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헌정은 최고의 효력을 지니는 비성문법 또는 성문법 형태를 통해 국가 권력의 행사와 국가 활동의 운용을 규정하는 근원적 정치체제의 형태이다. 헌정은 국가의 근본제도를 통해 권력의 악행(惡行)을 제약해야 하며, 동시에 국가의 근본제도를 통해 권력의 행선(行善)을 촉진해야 한다. 이는 권력에 대한 규정이다. 민중에 대해서 헌정은 국가의 근본제도를 통해 시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뿐 아니라, 국민의 도덕을 고양해야 한다.<sup>27)</sup>

26) 蔣慶, 『政治儒學』(福建教育出版社, 2014), 49쪽.

27) 蔣慶, 『再論政治儒學』(華東師範大學出版社, 2014), 135쪽.

장칭이 보기에 유학이야말로 중국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이념적, 실천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sup>28)</sup> 특히 그는 유학의 본령은 어디까지나 정치유학, 제도유학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유학의 이념과 헌정주의의 이론적 통합을 시도한다. 공양학의 탁고개제 전통의 가장 열렬한 옹호자라는 점에서 그의 모습은 흡사 동중서 또는 Kangyuei의 재등장이라 할 만하다. 구체적으로, 그의 유교헌정론 구상은 크게 정치적 정당성 부분과 제도론 부분으로 구성된다. 먼저 그는 유교헌정의 합법성의 근거를 논하면서 이른바 ‘삼중합법성(三重合法性)’ 원리를 제시한다. 그는 유교헌정의 합법성이 유교의 천인합일의 이상, 구체적으로는 천도(天道), 지도(地道), 인도(人道)의 화해에 근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들 각각을 ‘초월신성(超越神性)의 합법성’, ‘인심민의(人心民意)의 합법성’, ‘역사문화(地道)의 합법성’이라 칭하는데, 서구민주주의의 합법성이 민의(民意) 합법성에만 치중했다는 반성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한편, 장칭은 천도, 인도, 지도의 합법성을 구현하는 제도적 기구로 통유원(通儒院), 서민원(庶民院), 국체원(國體院) 설립을 제안한다. 이를 그는 의회삼원제(議會三院制) 형태라고 규정하는데, 이들 기구의 구성과 기능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통유원은 ‘초월신성의 합법성’을 대표한다. 그 구성원은 민간, 정부 출신의 엘리트나 유교 지식인, 사회 저명인사 등에서 충원한다. 선발 기준 가운데는 사서오경(四書五經)을 비롯한 유교 경전에 대한 지식이 중심이 된다. 한편 통유원의 의장은 유교 진영에서 추천한 인물이 맡는데,

28) 그는 작금의 중국 현실에 유학이 다음과 같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① 중국인의 개체 생명을 안정시킨다. ② 중국인의 사회적 도덕을 재건한다. ③ 중화민족의 민족정신을 구축한다. ④ 중국인에게 신앙과 희망을 제공한다. ⑤ 중국의 정치문명을 재건한다. ⑥ 중국의 문화적 특색을 갖춘 정치문명을 건립한다. ⑦ 중국 현대화 과정에서의 도덕적 기초를 정립한다. ⑧ 중국의 생태, 환경 문제에 대안을 제시한다. 蔣慶, 『儒學在當今中國什麼用?』, 範瑞平, 洪秀平 주편, 『儒家憲政與中國未來』, 3-16쪽 참조.

최장 20년의 임기가 가능하다. 그리고 서민원은 보통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뽑으며 인심민회의 합법성을 대표한다. 이는 서구의 선거 민주제를 제한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끝으로 국체원은 역사문화의 합법성을 대표하며, 세습과 지명을 통해 구성원을 선발한다. 공자의 후손들, 역대 성왕이나 위인의 후손들이 주요 구성원이다. 일종의 귀족제 또는 상원제에 가까운 기구라고 할 수 있다. 장칭은 통유원과 국체원을 통해서 현능정치나 사인(士人) 정부 전통을 회복할 수 있으며, 서구의 다당제 민주제나 선거 민주제가 초래하는 부작용(예컨대 포퓰리즘)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sup>29)</sup> 한편 의회삼원제 체제와는 별도로 태학감국(太學監國)이라고 하는 학교 기구를 별도로 세우자고 말한다. 이것은 의회삼원제 체제를 지도, 견제하는 최고의 감독기구이다.<sup>30)</sup> 그는 태학감국 구상이 황중희가 『명이대방록(明夷待訪錄)』에서 강조한 ‘학교에 의한 통치(學治)’를 계승했다고 이해한다.<sup>31)</sup> 그는 결국 유교적 이념에 해당하는 ‘도통(道統)’이 정치제도 측면의 ‘정통(政統)’을 지배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구상이 정교합일의 형태에 속한다고 인정한다.<sup>32)</sup> 이런 관점에서 그는 서구처럼 권리의 보장이 헌정제도의 일차적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공동체에서 종교적, 도덕적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 일차적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sup>33)</sup> 아래에서는 장칭의 이러한 유교헌정 구상에 대한 두 가지 반론을 소개하고자 한다.

## 2) 천주웨이(陳祖爲, Joseph Chan)의 ‘온건한 유교헌정주의’

영문 이름(Joseph Chan)으로 더 잘 알려진 홍콩 학자 천주웨이는 유학

29) 의회삼원제의 기본 구성에 대해서는 蔣慶, 『再論政治儒學』, 19-27쪽 참조.

30) 蔣慶의 태학감국제 구상에 대해서는 위의 책, 29쪽 이하 참조.

31) 위의 책, 139쪽.

32) 蔣慶, 『廣論政治儒學』(東方出版社, 2014), 29쪽.

33) 위의 책 137쪽.

이 입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에 관해 현재 긍정과 부정 두 입장이 대립한다고 지적한다. 당연히 전자는 장칭을 비롯한 유교헌정주의 노선을 가리킨다. 후자의 예로 그는 위잉스(余英時)와 리밍후이를 거론한다. 위잉스는 현대 사회에서 유학은 ‘떠도는 혼령(遊魂)’에 불과하며, 상아탑 안에서야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관적 전망을 내린다. 리밍후이는, 비록 현실 비판자로서 유가 지식인 나름의 역할 공간이 있겠지만, 유가적 이념을 정치제도에 직접 반영시키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다.<sup>34)</sup> 한편 천주웨이는 유학이 사회의 개혁과 변화에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정책 결정이나 제도 형성에도 이론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말한다. 다만 그는 자신의 입장이 장칭처럼 급진적이지는 않다고 재차 부연하면서 논의를 이어간다.

장칭과의 차별화 과정에서 천주웨이는 유교헌정주의 노선을 두 가지로 구별한다. 그는 장칭의 입장을 ‘급진적 유교헌정주의’ 노선이라 규정하면서, 자신의 ‘온건한 유교헌정주의’와 차별화를 시도한다. 이 두 노선의 차이를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전자는 ‘극단적 완전주의(extreme perfectionism)’ 또는 ‘포괄적 완전주의(comprehensive perfectionism)’에 근거하여 인간과 공동체의 완전한 이상을 설계하는 국가의 역할을 중시한다. 반면에 후자는 ‘온건한 완전주의(moderate perfectionism)’ 입장에 속한다. 이 입장에 따르면, 국가가 유학의 이론을 토대로 입법과 제도의 건립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는 없지만, 시민의 덕성을 함양하기 위해 정책의 입안이나 실천에 국가가 개별적, 선택적으로 개입할 수는 있다고 본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우리는 유교헌정주의를 둘로 구분할 수 있다. 유학의 ‘전면적 확장 노선’과 유가 가치의 ‘온건한 확장 노선’이 그것이다. 유학의 ‘전면

34) 陳祖爲, 「儒家憲政的合法性問題」, 範瑞平, 洪秀平 주편, 『儒家憲政與中國未來』, 75-76쪽.

확장 노선'은 '극단적 완전주의'에 속한다. 이 노선은 국가가 유학 전통에서 훌륭한 인생과 사회의 질서에 대한 정합적이고 완전한 이론을 널리 전파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정합적 이론을 입법이나 정책 제정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한편 유가 가치의 '온건한 확장 노선'은 '온건한 완전주의'에 속한다. 이 노선은 국가가 나서서 훌륭한 인생과 사회의 질서에 대한 정합적이고 완전한 이론을 선택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하지만, 국가가 유학에 내포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가치판단을 입법이나 정책의 부분적 근거로 삼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가치판단을 호소할 때, 유학의 이론을 포괄적으로 강요하거나, 다양한 가치에 우열을 정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이러한 두 가지 유교현정주의 중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sup>35)</sup>

‘완전주의(perfectionism)’ 입장은 국가가 개인들의 가치관이나 공동체의 선(善)과 목적을 판단하여, 개인과 공동체의 삶과 지향에 개입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에 국가의 ‘중립성(neutrality)’을 중시하는 현대 영미철학의 자유주의자들은 대체로 이러한 입장에 반대한다. 그것이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가치의 다원성을 훼손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예컨대 롤즈(John Rawls)의 이론에서 ‘완전주의’는 ‘포괄적 교리(comprehensive doctrine)’들이 공존하면서 서로 경쟁, 갈등하는 상황인 ‘합당한 다원주의적 사실’에 대한 위협 요소로 간주된다. 롤즈는 ‘완전주의’를 “예술이나 학문, 문화에 있어서 인간적 탁월성(excellence)의 성취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사회가 제도를 마련하고 개인의 의무와 책무를 규정하는 데 지침이 되는 단일 원리의 목적론적 이론이다”<sup>36)</sup>고 규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완전주의 입장이 한 국가의 정치원리로 채택되는 것을 거부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어떤 하나의 포괄적인 종교적, 철학적 또는 도덕적 교리에 대한 공유된 이

35) 陳祖爲, 「儒家憲政的合法性問題」, 範瑞平, 洪秀平 주편, 『儒家憲政與中國未來』, 77쪽. 한편 유교적 완전주의의 구분에 대한 陳祖爲의 다른 지면에서의 설명은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Joseph Chan: *Confucian Perfectionism*(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4), pp.99-100 및 p.200.

36) 존 롤즈 저, 황경식 역, 『정의론』(이학사, 2004), 428쪽.

해의 지속은 국가권력의 강압적 사용을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가 만약 정치사회를 유일하고 동일한 포괄적인 교리의 수용을 통하여 결속된 공동체로서 생각한다면, 이러한 정치공동체에서는 국가권력의 강압적 사용이 필요하게 된다<sup>37)</sup>고 지적한다. 개인의 권리가 공동체의 이익보다 우선하며, 정의의 원칙이 특정 가치관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롤즈의 관점은 아리스토텔레스 식의 ‘목적론’ 또는 ‘완전주의’ 입장을 거부한다.

천주웨이의 논의는 이러한 현대 정치철학 담론을 기초로 삼는다. 그가 보기에 장칭의 관점은 극단적인 ‘유교적 완전주의’에 속한다. 그리고 이는 개인의 행복한 삶 또는 공동체의 공공선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적극적 역할과 개입의 필요성을 요청한다는 점에서 다원주의적 가치와 양립할 수 없고, ‘국가의 중립성’을 강조하는 자유주의 입장보다 명확하게 대립한다. 물론 천주웨이의 구분은 영미철학의 자유주의적 입장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장칭의 ‘급진적 유교헌정주의’와 자신의 ‘온건한 유교헌정주의’를 구별하기 위한 전략이다. 넓게는 양자 모두 ‘유교적 완전주의’ 입장을 취하지만, 천주웨이는 자신의 노선이 문화적, 역사적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현대의 다원주의 관점과 양립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장칭이 유교헌정을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기초로 하여 중국 문명의 고유한 특성을 체현한 헌정 체제”로 규정했다고 보고, 태학감국제(太學監國制), 의회삼원제, 허군공화제를 그 핵심 요소로 거론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장칭의 유교헌정론이 표방하는 ‘극단적 완전주의’ 형태를 비판한다.

유학의 경전이 진리를 드러내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시민의 화해를 위해서도 장칭의 유교헌정론을 수용할 수 없다. 장칭이 건의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없이 정교합일의 방책으로서 유학을 유아독존의 통치

37) 존 롤즈 저, 장동진 역, 『정치적 자유주의』(동명사, 2016), 126쪽.

사상으로 만들자는 계획이다. 그러나 현대의 중국사회에서 시민들은 서로 다른 생활을 향유하고, 각자의 생활이념을 지니고 있으며, 이데올로기나 종교신앙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지니고 있다. 어떠한 현대의 유학자도 이를 무시할 수 없다. 현대 중국사회에서 시민의 화해는 매우 중요하다. 그것을 위해 정부와 시민의 사상적 개방성이 요구되며, 가능한 상호분열을 줄여야 하고, 심지어 의정(議政) 과정에서 적당한 양보도 필요하다. 그러나 장칭의 유교헌정론은 유학의 세계관과 인생관을 헌정의 기초로 삼는다. 이는 자유주의, 사회주의, 불교 또는 기독교 등을 믿는 중국 시민이 헌정에 있어서는 완전히 실패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한 정책은 기필코 시민의 화해를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며, 사회의 현실과도 동떨어진 논의가 되어버릴 것이다.<sup>38)</sup>

천주웨이가 볼 때 장칭이 강조하는 유교적 성인에 대한 존중과 천도(天道) 개념에 대한 신앙은 현대의 다원주의적 세계관에서 볼 때, 형이상학과 결부된 특정한 가치체계를 강요하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 종교, 신앙, 민족, 가치관이 다양한 현실을 배제한 채, 유학의 진리성을 내세우고, 국가의 정신생명의 계승과 확립을 주창하는 장칭의 관점은 현대 다원주의 사회에 대한 도전이다. 이처럼 특정한 ‘포괄적 교리’를 개인과 공동체에 강요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점에서 천주웨이는 롤즈의 입장에 동의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국가의 중립성’을 불변의 원칙으로 삼지는 않는다. 그는 비록 종교적, 도덕적 차원의 ‘포괄적 교리’를 국가의 이념과 제도 전반에 적용하는 데에는 반대하지만, 그럼에도 국가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정책 차원에서 개인의 행복과 공동체의 공공선을 위한 판단과 선택을 행할 수 있다고 본다.

이상과 같이 천주웨이는 ‘반(反)완전주의’와 ‘극단적 완전주의’ 사이에서 ‘온건한 완전주의’의 노선을 선택하면서 ‘온건한 유교헌정주의’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그의 이론은 장칭의 이론이 지닌 원리주의(fundamentalism)

38) 陳祖爲, 「儒家憲政的合法性問題」, 範瑞平, 洪秀平 주편, 『儒家憲政與中國未來』, 78-79쪽.

경향이 지닌 편향을 겨냥하고 있다. 또한 다원주의적 가치의 공존을 옹호하는 현대의 자유주의 이론을 수용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문화적, 종교적 전통의 현대적 의미와 계승 가능성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중용적 입장을 취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 유교적 가치를 존중하면서 동시에 공정성, 자유, 평등, 인권, 복지 등의 주제를 수용하고 논의할 여지를 열어준다는 점에서도 이론적 공헌이 있다.

3) 야오중추(姚中秋)의 ‘유가헌정론(儒家憲政論)’과 장칭에 대한 비판  
 ‘유교헌정주의’ 노선을 명확하게 선언하는 학자로 장칭 이외에 야오중추(姚中秋, 필명 秋風, 1966-)를 들 수 있는데, 그는 장칭과의 대비 속에서 자신의 이론을 가다듬는다. 그는 북경항공항천대학(北京航空航天大學) 교수 및 홍도서원(弘道書院)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유가 헌정주의 전통(儒家憲政主義傳統)』(2013), 『유가헌정론(儒家憲政論)』(2016) 등의 저술을 통해 유가헌정주의를 적극적으로 제창하고 있다. 먼저 그는 자신의 입장을 ‘유가헌정론(儒家憲政論)’이라 칭하면서 장칭의 ‘유교헌정론(儒教憲政論)’과 차별화를 시도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장칭은 정치유학을 제기하여 천지를 진동시켰고, 유학이 자신을 제약했던 협소한 구도를 타파했다. 또한 유학의 연구영역을 확장하여 논의의 범위를 온전하게 회복시켰다. (……) 그러나 장칭의 유교헌정론은 많은 난제를 안고 있다. 첫째 난제는 유교가 어떻게 성립하는가의 문제이다. 장칭의 유교론은 강유웨이(姜유웨이)의 공교론(孔教論)을 직접 계승하고 있으며, 공교는 기본적으로 기독교가 제도화된 교회를 건립하여 서구 헌정의 건립 이후 보편적 교화를 실행하려고 한 구상을 모방했다. 그러나 강유웨이가 직면한 최대 과제는 공교에 신(神)이 과연 존재하는가의 문제였다. (……) 역사적으로 유학에는 애초부터 신교(神敎)가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문교(文教)만이 존재했기 때문에 지금의 신교 방식으로는 유학을 재건할 수 없다. (……) 장칭은 완전한 헌정제도 방책을 설계한다. 그것은 허군공화(虛君共和)를 국제(國

體)의 형식으로 삼고, 국체원, 통유원, 서민원을 통한 삼원제를 의회  
의 형식으로 삼는다. 또한 대학감국제(太學監國制)를 감독기구로 삼  
았다. (……) 장칭의 유교헌정론을 겨냥하여, 필자는 ‘유교헌정론’을  
제시했다. 이는 중국 헌정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신교화(神敎  
化)된 유교가 아니라 문교(文教)로서의 유가(儒家)를 지향하는 것이  
다. 역사적으로 중국정치의 기초는 지금껏 유가 문교였으며 미래에도  
동일할 것이다. 이천 년 전에 동중서가 제시한 변혁 방안 역시 먼저  
학문의 흥성, 즉 문교의 흥성을 우선했다.<sup>39)</sup>

장칭에 대한 야오중추의 비판은 kang유웨이(康有爲)가 제창한 공교(孔敎) 운동에 대  
한 비판과 연동된다. 그는 장칭처럼 유교헌정주의의 실질적 현실화와 제  
도화에 몰두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유교헌정주의의 사상적 연원을 발  
굴하는 사상사 차원의 해석학 작업에 충실하며, 유학의 정치사상이 지니  
는 긍정적 면모를 온건한 수준에서 재해석한다. 예컨대 그는 역사적으로  
중국에 세 차례의 헌정주의 형태가 존재했다고 분석한다. 첫째는 서주(西  
周) 시기의 귀족봉건제이고, 둘째는 한대(漢代)에 시작된 군주와 신하의  
공치천하의 이상이며, 셋째는 kang유웨이에서 장권마이에 이르는 근현대 헌  
정주의자들의 시도이다.<sup>40)</sup> 그는 장칭처럼 정교합일 경향이 농후하고, 통  
합된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유교국가 건립을 지향하지 않는다. 그는 오히  
려 오히려 유학의 정치철학 전통에 내재한 인문주의의 발굴과 발양에 힘  
쓴다. 그에게 이 지점에서 그는 유교의 ‘교(敎)’가 지닌 의미 해석을 두  
고 장칭의 관점을 비판한다.

유학에는 분명 종교성이 있다. 이는 당대 유학의 주류적 견해이다.  
그러나 종교성과 종교는 다르다. 유학자는 분명 신앙을 지니고 있으  
며, 예컨대 천도(天道) 신앙을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은 제도 건  
립의 종교로 발전하지 않았다. (……) 유학은 애초에 종교인 적이 없

39) 姚中秋, 『儒家憲政論』, 246-248쪽.

40) 위의 책, 176-181쪽.

었다. 고대 사람들이 유학을 ‘교(敎)’로 삼았지만, 그 의미는 교화(教化)를 의미할 뿐, 현대인이 말하는 ‘종교’가 아니다. 유학은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적 의미에서의 종교가 아니다. 오히려 유학은 ‘문교(文敎)’의 형태이다. (……) 나는 유학을 계승하려는 장칭 선생의 노력을 흠모하지만, 유교에 관한 그의 생각에 동의하지는 않는다. (……) 유학의 부흥은 유교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없다. ‘유가현정’이야말로 실천 가능한 방안이다.<sup>41)</sup>

이처럼 야오중추는 종교신앙을 핵심으로 한 유교현정 구상에 반대한다. 앞서 말했듯 그것은 kang유웨이 공교론에 대한 비판과 상응한다. 그에게 유교의 핵심은 종교적 성격이 아니라 인문주의 전통에 놓여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문주의 전통의 핵심으로서 예컨대 그는 ‘공(公)’ 개념을 제시한다. 특히 그는 ‘공천하(公天下)’의 이상을 중시하면서, 그 속에서 공평(公平: 인간의 평등), 공민(公民: 정치의 주체), 공유(公有: 인본주의), 공론(公論: 언론자유), 공화(共和: 군주제의 한계), 공치(公治: 현자 우대) 등의 개념을 도출한다.<sup>42)</sup> 그의 작업은 공천하의 이상에 기초하여 유학의 정의론(正義論)을 구성하고, 유교현정주의의 지향점을 모색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야오중추의 사상사적 해독은 다분히 모우종산을 위시한 대만홍콩신유가의 ‘종자설’ 또는 ‘개출설’을 의식, 수용하고 있다. 다만 그는 모우종산 등이 유가전통에 내재하는 현정주의, 민주주의의 이론적 가능성을 철학적으로 해명하는 데 공헌했지만, 여전히 심성유학 전통에 치중하여 그 이론적 성과를 어떻게 현실에 안착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적극적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비판한다.<sup>43)</sup> 또한 야오중추는 장칭의 이론에도 크게 빛

41) 위의 책, 205-206쪽.

42) 위의 책, 34쪽 이하 참조.

43) 모우종산의 공헌에 대한 야오중추의 이해와 비판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姚中秋, 「儒家事業初論: 基於分期的視覺」, 『儒家憲政主義傳統』(中國政法大學出版社, 2013)에 수록.

지고 있는데, 심성유학보다는 정치유학에 기울어진 동중서나 강유웨이의 사상적 지위나 공헌을 충분히 긍정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러나 유학의 이념을 강력한 국교(國敎)의 지위에 올리려는 장칭의 시도에는 명확하게 반대표를 던진다는 점에서 천주웨이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온건한 완전주의’ 노선을 걷는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천주웨이가 구체적 정책과 법률 측면에서 제한적으로 유교의 이념을 현실에 투영시키자고 제안한다면, 야오중추는 직접적인 제도화 구상보다는 정치문화나 사회문화 측면에서 유학의 인문주의 전통을 회복하고, 유학의 공공성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점에서 또 다른 특성과 지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 4. 나오며: 비판과 전망

이상으로 근래 중국의 유교헌정주의 노선의 배경과 맥락, 그리고 그에 대한 비판을 정리해 보았다. 위에서 논한 내용 이외에도 예컨대 간춘송의 제도유학, 강샤오광(康曉光)의 헌정주의 논의 등도 모두 유교헌정주의 계보의 한 축으로서 다룰 여지가 있지만 지면 관계상 생략하였다. 한편 강유웨이당과 장칭과의 차이점에 대한 부분도 향후 더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할 지점이지만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못했다.

혹자는 중국의 유교헌정주의 노선이 서구의 민주주의에 대한 원숙한 이해를 결여한 채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유학 전통의 창조적 계승을 고민하고, 역사와 현실 속에서 함께 호흡해 나가는 그들의 실천을 가볍게 지나칠 수는 없다. 그럼에도 거자오광이 「기상천외: 최근 대륙신유학의 정치적 요구」에서 일갈했듯, 장칭의 유교헌정주의 노선이나 강유웨이당의 국가주의적 경향에는 이론적 숙고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편향된 민족주의, 중화패권주의, 반서구중심주의 등의 부정

적 요소가 적잖게 혼재되어 있다. 아래에서는 대륙신유가의 유교현정주의 담론이 갖는 한계와 나아가야 할 지점에 대해 몇 가지 지적함으로써 논의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거자오광의 지적처럼 정치유학의 부흥을 표방하는 노선은 권력에 대한 비판적 ‘견제’의 측면보다는 오히려 ‘결탁’의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아닌가? 필자가 보기에, 전통적으로 유학자의 지향에는 사도(師道) 전통과 현신(賢臣) 전통이 혼재되어 있다. 전자의 경우 권력에 영합하지 않는 비판적 지식인의 역할을 요구하는데, 만년에 이학(異學)으로 몰려 조정에서 배척당한 송대(宋代)의 정이천(程伊川)과 주자(朱子)가 대표적이다. 한편, 후자에서는 왕을 보좌하여 국가의 기틀을 세우는 역할이 중시된다. 또한 전자에서는 군주와 유학자 사이의 수평적 관계가 중시되고, 도의(道義)의 가치가 우선한다. 반면에 후자에서는 수직적 관계가 중시되고, 충절(忠節)의 가치가 우선한다. 그렇다면 정치유학의 대두를 말할 때, 전체 유학의 발전과 사명 차원에서 전자의 측면이 억제되어서는 안 된다. 『논어』의 “정치란 바로잡는 것이다(政者, 正也)”란 말을 상기한다면, 여기에서의 ‘정(正)’이란 제도와 질서의 건립뿐 아니라, 정치에 대한 비판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 점에서 비판적 지식인 전통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유학의 정체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앞서 언급했듯 대륙신유가의 유교현정주의 담론은 홍콩대만신유가에 대한 비판과 초극을 지향한다. 그러나 현대 서구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전통과 유학의 이념을 소통시키고자 했던 홍콩대만신유가의 고민은 여전히 유효하다. 자율적 주체의 자각과 양성을 통한 민주주의의 내면화와 성숙, 전통문화와 다원주의의 공존,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의 우선성 등은 유교적 자원을 재해석하고 활용함으로써 고양되어야 한다. 서구중심주의에 대한 반성으로서 유교현정주의 담론이 대두하는 것에는 그 나름의 정당성이 있지만, 그러한 지향이 또 다른 편향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경계의 목소리가 필요하다.

셋째, 장칭의 유교헌정주의 논의에 대한 천주웨이나 야오중추의 비판은 서구적 자유주의 전통이나 가치 다원주의적 지향을 수용하면서, 어떻게 유학 전통과 가치를 계승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응축되어 있다. 예컨대 그 속에는 서구의 근대성에 대한 비판적 성찰, 민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소통 가능성에 대한 통찰 등이 담겨 있다. 나아가 같은 유교문화권인 한국의 입장에서도, 현실과 유학 이론의 괴리를 극복하고, 일상의 문화나 정치적 담론 속에서 유학의 사상적 기능과 실천적 역할을 고민하는데 참고할 지점이 많다.

넷째, 유학의 ‘종교성’에 대한 보다 치밀한 이론적 규명이 필요하다. 정교분리와 정교합일의 대립 차원에서 유교헌정주의를 바라보는 것은 논의의 가능성을 협소하게 만든다. 예컨대 교(敎)를 ‘인문주의’로 이해하는 야오중추의 관점은 설득력이 있지만, 그러한 인문성 속에 과연 종교성이 배제되어 있는가는 재론의 여지가 있다. 다시 말해, 국가 이념 혹은 폐쇄적 도그마로서 성립하는 종교가 아니라, 주체의 자율성이나 숭고함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인문주의적 종교성의 가능성을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다.

끝으로, 현재 유교헌정주의 담론은 이른바 천하주의, 유교국가론, 공양학 이론, 화이(和夷) 담론 등과 착종하면서 그 계보와 지향점을 이해하는 과정이 더욱 복잡한 함수를 푸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그런 까닭에 각론 측면에서 각 계보와 주장을 파악하고, 그 의미를 해명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작업의 준비로서 이상의 논의가 작은 실마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논의를 마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孔穎達, 『尙書精義』  
朱熹, 『詩經集傳』  
강정인, 『넙니들의 정치사상』, 서울: 후마니타스, 2013.  
김현주, 「헌정의 중국성이 갖는 이데올로기적 성격: 姚中秋의 유가헌정민생주의를 중심으로」, 『유교사상문화연구』(71집), 2018.  
송인재, 「21세기 중국 정치유학의 이념과 쟁점」, 『유학연구』(33집), 2015.  
안재호, 「대륙신유가와 중국문화정책: 유교만능주의를 피하기 위하여」, 『중국학보』(78집), 2016.  
이석희, 「조선 유교입헌주의의 성립과 붕괴: 도통론과 문묘배향논쟁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이연도, 「정치유학의 의미와 문제: 대동, 소강설을 중심으로」, 『중국학보』(60집), 2009.  
정종모, 「현대신유학 내부의 충돌과 분열: 장경(蔣慶) 유교헌정론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유학연구』(39집), 2017.  
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편, 『21세기정치학대사전』, 서울: 아카데미아리서치, 2002.  
조경란, 「2000년대 중국의 유교부흥 현상 분석: 의미와 문제점」, 『한국학연구』(49집), 2018.  
최연식, 「『예기』에 나타난 예의 법제화와 유교입헌주의」, 『한국정치학회보』(43집1호), 2009.  
함재학, 「유교적 입헌주의와 한국의 헌정사」,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14권3호), 2008.  
干春松, 『制度儒家及其解體(增訂版)』, 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12.  
\_\_\_\_\_, 『制度儒學(增訂版)』, 北京: 中央編譯出版社, 2017.  
\_\_\_\_\_, 『康有爲與儒學的新世』, 上海: 華東師範大學出版社, 2015.

- 任 鋒, 「憲政儒學的傳統啓示」, 任鋒 등 주편, 『儒家與憲政論集』, 北京: 中央編譯出版社, 2015.
- 姚中秋, 『儒家憲政主義傳統』, 北京: 中國政法大學出版社, 2013.
- \_\_\_\_\_, 『儒家憲政論』, 香港: 香港城市大學出版社, 2016.
- 許紀霖, 「儒家憲政的現實與歷史」, 廣州市社會科學院, 『開放時代』(2012年 1期), 2012.
- 陳 明, 『文化儒學: 思辨與論辨』, 成都: 四川人民出版社, 2009.
- 陳弘毅, 「儒家與憲政: 從張君勱先生的生平與志業談起」, 『中國法律評論』(2014年 1期), 2012.
- 郭濟勇, 『現當代新儒家思想研究』, 北京: 人民出版社, 2017.
- 曾亦, 郭曉東編, 『何謂普世? 誰的價值?: 當代儒家論普世價值』, 上海: 華東師範大學出版社, 2013.
- 葛兆光 著, 양일모 역, 「기상천외: 최근 대륙신유학의 정치적 요구」, 『동양철학』(제48집), 2017.
- 範瑞平, 洪秀平 主編, 『儒家憲政與中國未來』, 上海: 華東師範大學出版社, 2012.
- 蔣 慶, 『再論政治儒學』, 上海: 華東師範大學出版社, 2011.
- \_\_\_\_\_, 『廣論政治儒學』, 北京: 東方出版社, 2014.
- \_\_\_\_\_, 『公羊學引論(修訂本)』, 福州: 福建教育出版社, 2014.
- \_\_\_\_\_, 『政治儒學(修訂本)』, 福州: 福建教育出版社, 2014.
- 蔣 慶 等著, 『中國必須再儒化: 大陸新儒家新主張』, 新加坡: 八方文化工作室, 2016.
- 四川省社會科學界聯合會, 『天府新論』(2016年 2期), 2016.
- Daniel A. Bell 저, 김기협 역, 『차이나 모델: 중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왜 유능한가』, 서울: 서해문집, 2017.
- John Rawls 저, 황경식 역, 『정의론』, 서울: 이학사, 2004.
- \_\_\_\_\_, 장동진 역, 『정치적 자유주의』, 광주: 동명사, 2016.

David Elstein, *Democracy in contemporary Confucian philosophy*, Routledge, 2015.

Jiang Qing, *A Confucian Constitutional Order: How China's Ancient Past Can Shape Its Political Future*,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3.

Joseph Chan, *Confucian Perfectionism: A Political Philosophy for Modern Times*,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4.

## **Philosophical analysis on Confucian Constitutionalism in contemporary China**

Jung Jong Mo (Sogang Univ.)

This paper analyzes discourse of 'Confucian Constitutionalism' in Neo-Confucianism in China. Scholars who argue Confucian Constitutionalism aim to criticize and overcome the theory of Neo-Confucian scholars in HongKong and Taiwan who tried to make modern interpretation of Confucianism in the 20th century. In addition, they are trying to reflect the ideology of Confucianism into institutions and laws based on Political Confucianism and Institutional Confucianism. The claim of Confucian Constitutionalism proposed by Jiang Qing is the radical Confucian Constitutionalism in a form of unity of politics and religion. In this regard, Joseph Chan and Yao Zhongqiu assert their own moderate Confucian Constitutionalism as criticizing and modifying Jiang's theor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ain the theory of Confucian Constitutionalism and to examine meaning and limitation of it.

**Key words:** Neo-Confucianism in China, Political Confucianism, Confucian Constitutionalism, Liberalism, Perfectionism

대륙신유가의 유교현정주의 담론 / 정종모

정종모 e-mail: jeta99@naver.com

투 고 일	2018년 07월 23일
심 사 일	2018년 07월 30일
게재확정	2018년 08월 14일